

1 2026 VOL. 355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E
THE FIRST
M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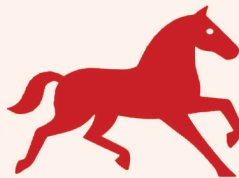


KMK GROUP

교민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말(言)’이 현실이 되는 2026.

인도네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한 질주,

무궁화유통이 적토마처럼 거침없이 함께 달리겠습니다.



무궁화 지점

스나안 / 땅그랑 / 찌까랑 / 다르마왕사 / 골라빠가딩 / 찌부부르 / 뽕독인다 / Apt.아마르타뿌라 / Apt. 찌뿌트라 인터네셔널
 끄망빌리지 / 라베뉴 / 발리 / 반둥 / 반둥 꼬따바루 / 바탐 / 빈다로 / 솔로 / 가딩세르풍 / 즈빠라 / PIK / 플루이트 / 뉴턴1 / 끄본즈룩
 쯔빠까마스 / 메단 / 스마랑 / 수라바야 / 족자카르타 / 찢레곤 / 뽕띠아낙 / 빈탄 / 팔렘방 / 뽕독빼낭 / BSD / 발릭파판

무궁화 계열사

PT.BUMI TOUR / PT.PRIMA MUDA CONSTRUCTION / PT.INDO BUMI RETAIL / PT.BUMI INDAH MAKMUR
 PT.PERKASA INDAH SECURITY / K-FOOD by. MU GUNG HWA / BON BREAD / KOT · GIL



www.mugunghwa.co.id



@mugunghwa_id



mghgood@gmail.com

본사 : 021) 722-2214

가맹문의 : 0811-870-386

인도네시아 최대 한국식품 수입사

인도네시아 유통중인 전체 한국식품의
 50% 이상을 무궁화유통에서 수입
 인도네시아 전 지역 10,000여개
 현지 매장 한국 식품 유통

수입식품허가(ML) 등록 2,000건 이상

가치 창조

한국식품 신규 시장,
 인니 시장 개척과
 수출의 교두보

사회 공헌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및 봉사
 지역사회 구호활동

한식 문화 전파

무궁화 가맹점
 확대를 통해
 한국 식문화를
 인니 전역에 전파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T. TAEWON INDONESIA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8984 1133/1134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Best Quality & Delivery



MACHINE CAPACITY

Factory 1

- LDPE Extruder 8 Sets, Emboss Roller 3 Sets
- Sealing Machine 7 Sets
- HDPE Extruder 5 Sets, Emboss Rolle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3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4 Colour 2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5 Colour 1 Set
- PP Strapping Band Extruder 2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Side Seal Machine 4 Sets
- Crusher Machine 4 Sets
- Hanger Machine 4 Sets

Factory 2

- LDPE Extruder 12 Sets, Emboss Roller 5 Sets
- Sealing Machine 10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4 Sets
- Flexo Printing Machine 2 Colour 2 Sets
- PP Extruder 4 Sets
- Crusher Machine 1 Set
- Side Seal Machine 5 Sets
- Hanger Machine 5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Roll Bag Machine 1 Set
- HF PVC Machine Welding 5 Sets
- Corona Treatment 3 Sets
- Slitting Machine 1 Set

PRODUCT

- Polybag (LDPE, PP, HDPE), (5cm, 280cm width)
- All Kind of Shopping Bag 5 Colours Printing
- PVC Bag
- Garbage Bag
- PP Strapping Band (PP Band)
- OPP Bag
- Zipper Bag
- Emboss Roll Bag
- Roll Bag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MARKETING OFFICE

Kawasan Berikat Nusantara (KBN)

Jl. Sumatera Raya E-04, Cakung Cilincing Jakarta Utara

Telp : 62-21-440-3926 (hunting), fax : 62-21-440-3944

Email :

bhjangkt@gmail.com (Jang Bong Hee)

kenleejh@gmail.com (Lee Joo Hun)

30년을 고객과 함께...

한결같은 안전운송을 자랑하는
프로젝트 물류 전문업체 (Since 1993)

업무안내

- 수출입 화물 통관 및 해상, 항공 운송
- 프로젝트 전문 실무 최근 수행 (PIBB, MASTER LIST, SKB PPN)
- 프로젝트 카고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및 통관 (중고장비 포함)
- LCT/BARGE TRANSPORTATION

중요수행 프로젝트

- Lotte Chemical LINE Project
- Grati CCPP Power Plant Project
- Rajamandala Hydroelectric Power Plant Project
- INAS Asahimas Chemical Project
- Suban (Phase 1&2) Gas Project

인도네시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달려가겠습니다.



PT. HANINDO EXPRESS UTAMA

주 소 :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H.R Rasuna Said
Kav. 8-9 Kuningan Jakarta 12950 - INDONESIA

이 메 일 : hanindo@hanindo.net

홈페이지 : www.hanindoexpres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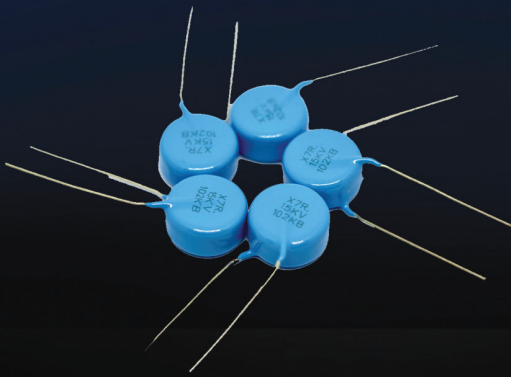
전 화 : +62-21-252-5123 (Hunting) Fax : +62-21-252-0551/0556

HP : +62-81-848-5570 (Mr. Cho) Hp : +62-811-816-0627 (Mr. Shin)

THE CHALLENGE NEVER ENDS

끝이 없는 도전! 삼화콘덴서 그룹의 미래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T. SAMCON

디스크 세라믹 커패시터, 바리스터 제조
(Disc Ceramic Capacitor, Varistor)

JL. RAYA SUBANG KP. KIARA DUA
RT 002 RW. 001, CIKUMPAY CAMPAKA,
PURWAKARTA, JAWA BARAT

TEL : +62-264-216-882

www.samwha.co.kr/capacitor

hwseo@samwha.com



삼화콘덴서

고객을 위한 신기술 창조!

MLCC • DCC • EMI FilterBead ...



삼화전기

미래를 위한 선택! 삼화전기입니다.

EDLC • Al E-Cap



삼화전자

한국 전자부품산업의 선구자

Ferrite Core • MPC



삼화텍콤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삼화텍콤!

Transformer • Inductor • Reactor



PT CIPTA ORION METAL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福

20
26



CONTACT

✉ support@destec.co.id

☎ +62 851 8681 6511

📷 destec_official



destec



꽃

● 김준규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그대는

아침에 눈 뜨면
눈부신 태양을 보고 싶고
촉촉한 이슬로
입술을 적시고 싶다

그대는

가냘픈 까치발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
외로운 밤 별빛에 기대어
한없이 속삭이고 싶다

그대는

누군가 그대를 보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매일 화장을 한다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JKCC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이 문예총 제8회 종합예술제 무대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도레미송 (Sound of Music OST)>, <내 나라 우리 땅>을 밝고 순수한 목소리로 열창하며 교민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09 [2026 신년 詩] 꽃 | 김준규 시인

12 [2026 신년 휘호] 應變創新

13 [2026 신년 복주머니] 이연화 작가

14 [2026 신년사] 김종현 한인회장

16 [2026 신년사]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18 [2026 신년사] 이강현 코참회장

20 [2026 신년사]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

22 《한인뉴스》 학생기자를 소개합니다

23 [2026 신년캘리] 오순옥 작가

24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6년 인도네시아, 성과의 해가 될 것인가

26 신한인도네시아은행, 韓 은행 최초 BI '지속가능금융' 수상

28 한-인도네시아 테러 및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에 관한 1.5 트랙 세미나 개최

29 [다카시 풍경 23] 만남 | 임주경

contents

2026. 1. 통권 355호

- 30 [한인회 이모저모]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접견... 교민 권익 증진 논의
- 31 [한인회 이모저모] 대한글로벌 이등규
대표, 인도네시아 아제 수재민 위해
의류 101,000벌 기부
- 32 [지역한인회 이모저모]
칼리만탄한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 33 [지역한인회 이모저모]
칼리만탄한인회, 중부·남부
칼리만탄 지역 간담회 개최
- 34 [데일리인도네시아]
월간 뉴스 브리핑
- 36 [조연숙의 인도네시아 천 개의 이야기]
안정 대신 제도를 택하다: 하비비
시대를 다시 보다
- 38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인도네시아에서
출범식 상황리 개최
- 40 “부산의 열정, 자카르타에서
빛나다”... 제106회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식 성료
- 42 「다함께, TOGETHER」로 하나 된
예술의 장 ‘문예총 제8회
종합예술제’ 상황리에 개최
- 45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K-Product
Showcase’ 개최
- 46 [서상영의 한방칼럼 33]
약초꾼 이야기 2화 - 석산(4)
- 48 [손상현의 자카르타의 아침]
새해에는 즐기는 골프를 하자
- 51 [JKS 소식]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요!’
- 52 재 인니 색소폰 동호회 ‘2025 송년
콘서트’ 상황리에 마쳐
- 55 [김재훈의 ‘세무 TALK’] 12월 갑근세
TER 대신 소득세법 제17조 세율 적용
- 56 [행복에세이]
엄마가 된다는 것 | 우지수
- 58 [한국문협] 인도네시아 한인 문학의
산실, 제7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성료
- 60 [권영경의 열두 달 식물칼럼 시즌 2]
잘 견디고 잘 남아 있는 삶
- 62 [I K Wind Orchestra]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음악으로
전한 위로
- 64 [재인니외식업협의회]
2025년 제13회 ‘외식인의 날’
골프대회 및 정기총회 상황리 개최
- 66 [Michella’s Hyaang the Yoga 15]
폼 미쳤다, 비라바드라사나 전사
자세 3
- 68 언어와 문화를 잇는 배우의 현장,
땅그랑 세종학당 수료식 성료 |
정유희
- 69 [아층의 코-인사이드 8]
소중한 사람
- 70 [인도네시아법 해설 353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2)
- 72 2025 임원회비 납부명단
- 76 생활정보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應變創新
 應變創新(응변창신) | 시대 변화에 호응하여 새롭게 창조하다

병오년에 응화하여
 새롭게 창조한다
 二〇二五年年
 元旦 倭山

應變創新(응변창신) | 시대 변화에 호응하여 새롭게 창조하다

謹賀新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인도네시아 한인 모든 분들의 건강하심과 하시는 일
일익번창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 2026년 새해 아침

추산 박도연(倭山 朴道淵)

2016년 자필묵연 찌까랑 서당 회원으로 서예에 입문하여 매 정기전과
고국나들이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서예대전에 무려 9회 연 입선,
서울서예대전 입선과 특선 다수로 초대작가가 되었다.





복주머니는 마음과 바람을 담아 전하던 우리 전통의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차고도 따뜻한 기운이 일상에 스며들기를 바라며, 자카르타에서 복주머니를 짓는 이연화 작가는 새해에도 조용히 복을 담습니다.

 @leejakga_



적토마의 기운으로 도약하는 2026, "함께해서 든든한 한인 공동체"

- 위대한 한인 사회의 저력으로 여는 새로운 내일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인도네시아 방방곡곡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오늘을 일구고 계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적토마(赤兎馬)의 지혜와 기운이 넘치는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도네시아의 급변하는 전환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낯선 제도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 한인 사회는 결국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의 결집된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기업을 일구며 국위를 선양하시는 기업인 여러분, 낯선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단단히 가꾸며 우리 사회의 뿌리가 되어주신 분들,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헌신하시는 학부모님들까지,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인 사회의 화합과 위상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신 각 단체와 기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장 뒤편의 궂은일과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차세대의 성장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은 우리 한인 사회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은 세계 속에서 빛나는 재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라 참 든든하다” 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긍심은 바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2026년은 한-인니 양국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인회는 다음의 목표를 향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보호받는 한인 사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비상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창구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가 꿈을 꾸는 미래 지향적 한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셋째 ‘소통하고 하나 되는 열린 한인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육·교류 활동을 통해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유관 기관과 한 팀이 되어 교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생활 지원 그리고 양국 간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은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배려 깊은 말 한마디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모여 우리 한인 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연대는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한인회는 연대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맞추어 뛰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인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2026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김종현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도 세계도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안정적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2026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및 경제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이 상호 보완적 경제안보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 지난 50여 년 간 제조업 협력에서 시작하여 에너지·철강·건설·플랜트 등 기반 산업 협력에서부터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를 아우르는 K-컨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라는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한 데에는 각 분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포분들의 남다른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지난 11월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안보·방산 및 문화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이러한 정상간 합의가 모든 인도네시아 재외동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소통하면서 ‘팀 코리아’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 모두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앞으로도, 동포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병오년은 붉은 태양의 기운을 품은 말의 해로, 뜨거운 열정과 힘찬 도약,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전진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병오년의 기운처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인 동포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한인 동포 및 기업인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길을 여는 한 해의 출발점에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번영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긴장 지속, 그리고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우리 한인 기업들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열정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6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2%~5.8%로 제시했으며, 중앙은행도 약 5.3%대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둔화, 수출 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 위험 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지화 전략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크게 조정되고, 교육·보건·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재정 구조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인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세입 여건과 성장 둔화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26년은 또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제7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제7대 코참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상공회의소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지만, 우리 공동체의 단합과 축적된 역량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새해를 맞아,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도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강현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큰 잠재력과 기회를 지닌 나라이며, 한인사회는 그 속에서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코린도 또한 인도네시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한인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며, 신뢰받는 이웃이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이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안정과 희망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린도 그룹 회장 승은호

《한인뉴스》 학생기자를 소개합니다



박승헌 | ACS Jakarta 11학년

대입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딱 1년. 2026년은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SAT와 토플 고득점이라는 확실한 결과로 내 실력을 증명해내고 싶다.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를 만들겠다.

#역사 #SAT #토플 #점수_UP #공부하자 #11학년 #입시올인 #목표달성



한동훈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0학년

2026년, 비행기처럼 더 높이 비상하며 세상의 숨겨진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학생기자가 되고 싶다. 나의 가장 큰 무기인 '호기심'을 안테나 삼아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장을 편견 없이 취재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대변하는 기자가 되겠다. 기사 작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언어 실력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꾸준히 준비 중인 토플 (TOEFL) 점수를 목표치까지 끌어올려, 로컬을 넘어 글로벌한 시각까지 겸비한 '준비된 기자'로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넓은_세상을_향한_비행기 #호기심 #다문화와_포용력 #봉사하는_기자 #토플_마스터 #JKKS #10학년



남윤주 | ACS Jakarta 10학년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찾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며, 남들에게 나의 의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 무엇이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남의 일이라도 내 일처럼 생각하며, 누군가를 돕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지고 싶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세상을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집 #입짧은_미식이 #뿌리깊은_나무 #빛을_기다리는_호기심 #가능성을_품은_캔버스



최윤희 | SPH Kemang G11

부모님의 미국 유학 시절 태어난 나의 이름 '윤희(聿稀)'에는 '귀한 글썹씨를 가진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네 살 때 인도네시아로 건너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어가 좋고 한글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다. 2026년에는 하인사회 곳곳을 생생히 기록하는 학생기자가 되고 싶다. 나의 무기인 '호기심'을 안테나 삼아 다문화 현장을 편견 없이 취재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대변하겠다. 토플 등 언어 역량도 갈고닦아 글로벌한 시각까지 겸비한 '준비된 기자'로 성장하자!

#붓을_드물희 #글쓰는_문과생 #한글사랑 #호기심_안테나 #글로벌_학생기자

2026



말바글바글
소리처럼
행운이
쏟아지길



“2026년 인도네시아, 성과의 해가 될 것인가”



논설위원 신성철

2026년 인도네시아는 ‘변화의 약속’이 ‘체감되는 성과’로 옮겨지는지 시험받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 출범 이후 2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치·외교·경제·사회 전반의 논의는 점차 비전보다는 집행과 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견실한 경제 성장 전망… 분명치 않은 외교 노선

경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환율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성장률 5% 안팎을 가정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 환경과 루피아 변동성은 여전히 변수다. 재정 지출 확대가 단기 성장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6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각각 5%, 2027년은 5.2%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평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세계은행의 판단 근거는 분명하다.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민간 신용 증가,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성장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낮은 물가와 재정 부양도 가계 소비를 떠받치는 요소로 지목됐다.

그러나 성장률 숫자만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고용은 늘었지만, 새로 생긴 일자리의 상당수는 저임금 부문에 집중됐다. 실질임금은 2018년 이후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고, 중숙련 일자리는 저숙련·고숙련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가계 소비의 회복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외교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비동맹적 실용 외교 노선을 유지하며 방산, 에너지, 식량 분야 협력을 다변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1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평가는 신중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비교적 중앙집중적으로 운용하면서 협력 파트너와 외교 무대를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CSIS 연구진은 프라보워 외교의 성격을 ‘직관 중심’ 이라고 진단했다. 초기 국면에서는 전략적 감각이 작동했지만, 이제는 보다 구조화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정책 결정 과정이 소수 참모진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부의 전문성과 국회의 민주적 감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외교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아세안의 위치가 다시 강조됐다. 인도네시아 외교에서 아세안은 여전히 중심축이어야 하며, 내년 아세안 사무총장 선출은 인도네시아가 역내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아세안 중심성은 외교적 완충지대이자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1년은 ‘결론’ 보다는 ‘과정’ 에 가깝다. 외교의 재조정이 선언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세안·미국·중국 사이에서 인도네시아식 균형 외교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최우선 국정과제 무상급식의 난제… 기후와 재난 대응 방안은

정치는 강한 중앙집중형 권력 운영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형 공약의 성과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인 무상급식은 2026년 대폭 확대가 예정된 대표적 정책이다. 복지 확대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식품 안전, 조달 투명성, 지역별 집행 역량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크다. 2026년은 이 정책이 상징적 공약을 넘어 제도화된 국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르는 해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기후와 재난 문제가 일상적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홍수, 산사태, 해안 침수와 같은 현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복지·인프라 사업이 현장 관리 부실이나 환경 문제와 결합될 경우, 사회적 긴장은 증폭될 수 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는 ‘양적 성장’ 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지역 분산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광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지만, 과도한 이벤트 중심 정책보다는 안전, 환경,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2026년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해라기보다, 이미 선택한 길의 성과와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가 축적된다면 안정의 해로 기록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집행 능력과 제도 설계에 대한 질문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2026년은 인도네시아가 ‘의지의 정치’ 를 넘어 ‘관리의 정치’ 로 이동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韓 은행 최초 BI ‘지속가능금융’ 수상... 현지화·ESG 경영의 결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지속가능금융 우수 은행
(Best Sustainable Finance Driver)’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회장 구형회)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주관 ‘2025 BI 어워드(Awards)’에서 ‘지속가능금융 우수 은행(Best Sustainable Finance Driver)’ 부문을 수상하며 K-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달성했다. 구형회 행장의 리더십 아래 거둔 이번 성과는 한국계 은행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구형회 행장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성장’과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BI 어워드 수상의 의미와 더불어, 최근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보여준 경영 혁신과 주요 성과를 상세히 짚어본다.

‘녹색 금융’의 표준을 제시하다: 한국계 은행 최초의 리더십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시상식에서 녹색경제 전환 지원과 ESG 정책의 선도적 도입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통상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저탄소 경제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차 금융 상품인 ‘MyCarLoan’을 통해 전기차(EV)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ESG 예금 등 친환경 수신 상품을 출시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지속가능금융 영역으로 확장한 점이 주효했다. 구형회 행장은 “이번 수상은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금융의 수익성과 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견고한 ESG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질적 성장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2030년 30위권 진입 청사진

경영 지표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기존 기업금융 위주의 수익 구조를 탈피하고 리테일(소매) 금융 비중을 확대하는 균형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



로 안착시켰다. 2025년 9월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228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고, 고객 수는 1년 새 30%가량 급증해 31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개인 고객 기반의 확장은 현지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방증한다.

리테일 여신 부문 역시 ‘My Car Loan’과 근로자 신용대출 등의 호조에 힘입어 2021년 말 2200만 달러 수준에서 2025년 9월 1억 1300만 달러로 연평균 51%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리스크 분산과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 행장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시중 은행 자산 순위 30위권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신인도 제고: IFC 2억 달러 투자 유치의 함의

지난 2023년 12월 성사된 국제금융공사(IFC)의 2억 달러 투자는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글로벌 역량을 입증한 결정적 장면이다.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IFC로부터의 자금 유치는 신한금융그룹과 IFC 간의 글로벌·ESG 협약 이후 첫 결실이자, 은행의 대외 신인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확보된 재원은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40%), 중소기업 지원(20%), 해양·수자원 인프라(15%)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는 현지 경제의 구조적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인프라 확장과 디지털 혁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금융 허브

2025년 3월 자카르타 상업 중심지에 개점한 ‘Jakarta Central’ 지점은 한인 커뮤니티와 현지 상공인을 연결하는 오프라인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부문에서는 한국계 은행 최초의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 비대면 실명인증(E-KYC) 구현 등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신한 쏘(SOL) 인도네시아’ 플랫폼을 통해 선보인 온라인 전용 상품들과 외국계 은행 최초의 교통카드(Flazz) 충전 기능 도입 추진 등은 현지 디지털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은행의 의지를 보여준다.

Bigger & Stronger: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동반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부회장을 겸임하며 지역 동포 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이끄는 구형회 행장은 ‘BSI(Bank Shinhan Indonesia)’의 새로운 비전인 ‘Bigger(성장), Stronger(내실), Infinite Passion(도전)’을 기치로 내걸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한인 기업과 교민들의 핵심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뉴스 편집국

한-인도네시아 테러 및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에 관한 1.5 트랙 세미나 개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제공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2월 10일(수) 인도네시아대학과 공동으로 제2차 한-인도네시아 대테러 정책 및 협력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대테러센터, 인도네시아 대테러청(BNPT), 대테러 특수부대(Densus 88), 경찰청 등 양국 정부 기관과 학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하여 테러 및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과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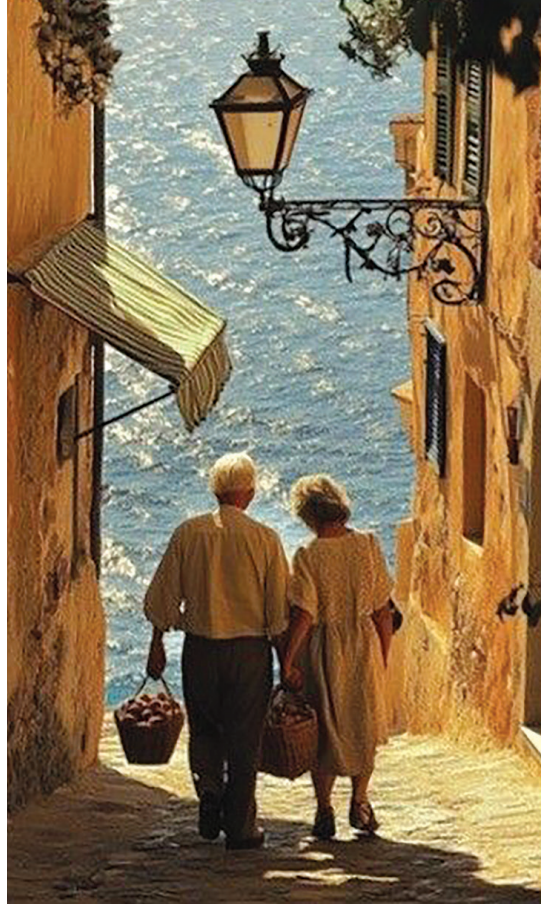
심포지움에서는 인도네시아 내 테러 위협을 진단하고 대응 정책의 발전 경로를 살피는 한편, 최근 역내 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한 온라인 스캠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의 대응 노력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양국 유관 정부 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테러와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가 양국 및 역내 주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한 국가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한-인니 및

한-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동남아 지역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임을 상기시키며, 양국 신정부 출범에 맞춘 안보 협력 강화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측 참석자들은 지난 3년간 자국 내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게임을 통한 극단주의 확산과 핀테크·암호화폐를 활용한 테러 자금 유통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니 프리안토 인도네시아 경찰 다자협력과장은 자국민들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의 온라인 스캠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이 테러 및 초국가범죄 대응 지식을 공유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해당 분야의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남

임주경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당신을 만나다는 것은
내겐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남으로 시작된 많은 이야기 중
술한 마침표를 오선지에 그려가듯 이어진 점들은
인생이 되어 갑니다

버들가지 부비는 바람 같은 당신, 운명처럼
당신만은 지나가지 못하고
나를 흔듭니다

나를 깨웁니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환담... 교민 권익 증진 논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헌)는 지난 12월 9일(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교민 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헌 회장, 이지완·양태화 수석부회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법무부 측에서는 출입국정책단장을 포함한 실무진이 배석했다.

이번 만남은 재외동포 출입국 정책의 현장 목소

리를 청취하고 교민들이 겪는 비자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교민들의 모국 출입국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김종헌 회장은 “앞으로도 교민들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찌까랑 한인회 2025 송년 골프대회 화합의 굿샷

- 한준석 회장 동포 사회의 소통과 단합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



찌까랑 한인회(회장 한준석)가 지난 12월 4일 목요일, 카라왕 로터스 레이크 골프클럽(Lotus Lakes Golf Club)에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준석 회장을 비롯한 많은 찌까랑 거주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필드 위에서 뜨거

운 우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찌까랑 한인 공동체의 단합을 확인하는 송년회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준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오늘 이 자리가 서로 격려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글로벌 이동규 대표, 인도네시아 아찌 수재민 위해 의류 101,000벌 기부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로서 현지 사회와 상생하며 민관 협력의 귀감 보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로 활동하며 동포 사회와 현지 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규 대한글로벌(PT. Daehan Global) 대표가 최근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아찌(Aceh)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신규 의류 101,000벌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인 기업이 손을 잡고 재난 구호에 나선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현지에서 큰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무부(Kemendagri)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구호 물품 전달은 지난 12월 15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무하마드 티토 카르나비안(Muhammad 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이 제안한 이동규 대표의 의류 기부 안건을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내무부는 물품의 원활한 수송과 행정 절차를 위해 재무부 관세청, 국세청,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급 협의를 거쳤으며, 서부 자바 수카부미(Sukabumi)와 중부 자바 브레베스(Brebes)에 위치한 대한글로벌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신속하게 출고했다.

기부 물품은 바지, 티셔츠, 재킷, 조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마트라 지역의 습한 날씨와 이재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실용적인 품목 위주로 선별되었다. 특히 재고나 중고 물품이 아닌 시중 판매용과 동일한 고품질의 신제품이라 현지 사회에 더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총 101,000벌의 의류는 아찌 지역 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아찌 따미양(50,500벌) ▲북아찌



(24,266벌) ▲동아찌(26,234벌) 등 3개 군에 배분되었다. 티토 내무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대한글로벌과 한인 기업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내무부 대변인 카스토리우스 시나가는 “가산을 모두 잃은 이재민들에게 대한글로벌이 제공한 새 옷은 위로와 희망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동규 대표의 이번 결단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지 언론들도 앞다투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인 이동규 대표의 결단과 한국 기업의 따뜻한 나눔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 지원과 만나 재난 극복을 위한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은 물론 현지 내 한인 사회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한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 나성문 현 회장 제4대 회장 인준… “칼리만탄에서 민간외교의 모범 이어갈 것”
- 세계 김치의 날 기여자 감사장 수여

2025년 12월 13일,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한인회는 인도네시아 동부칼리만탄주 발릭파판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제4대 회장 선출 안건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단독 후보로 출마한 나성문 현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총회 회원들의 동의·제청 절차를 거쳐 공식 인준·공포했다. 이에 따라 나성문 회장은 제2대, 제3대에 이어 제4대 회장으로 다시 한번 칼리만탄한인회를 이끌게 됐다.

또한 총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의결되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송년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덕 대사대리, 강원준 총영사, 운영봉 영사 등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내·외빈과 칼리만탄 지역 교민들이 참석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의 새로운 수도가 들어설 칼리만탄 지역에서, 나성문 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포사회의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고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2025년 세계 김치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운영하는 데 기여한 조원경, 김가은, 김은진, 김진영, 최민주 씨 등 5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인회는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김치 문화와 한국의 맛을 현지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나성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칼리만탄한인회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 모든 교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라며 “앞으로도 교민 간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칼리만탄 전역에서 한국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 행사는 한인동포 수와 한인 기업이 많지 않은 칼리만탄 지역에서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의 안정성과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한인회, 중부·남부 칼리만탄 지역 간담회 개최

- 한인동포 애로사항·이민국 문제 논의 및 현장 방문 진행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한인회(회장 나성문)는 2025년 12월 3일, 중부 및 남부 칼리만탄 지역 한인동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부·남부 칼리만탄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성문 칼리만탄한인회회장, 김유진 수석부회장 겸 남부지역부회장, 우동일 중부지역부회장, 권태윤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부·남부 칼리만탄 지역 한인동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부 및 남부 지역 한인동포들의 거주 환경과 생활 애로사항, 이민국 관련 행정 절차 문제, 지역별 한인회 운영 및 교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남부 칼리만탄 반자르마신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유진 수석부회장이 정성껏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교민 간 친목과 유대를 다지는 시간이 이어졌다. 아울러 중부 칼리만탄 지역에서 활동 중인 김인숙 수녀가 직접 그린 작품이 선물로 전달되어 간담회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 이후 한인회는 남부 칼리만탄 반자르마신에 위치한 김유진 수석부회장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온 교민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반자르마신 지역에서 숲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한국으로 수출하는 이원영 대표의 공장을 견학했다. 이 외에도 닭털을 활용한 사료 공장을 운영 중인 고주용 대표, 카사바 전

분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손한민 대표를 만났으며, 남부 칼리만탄에서 사역 중인 김태환 선교사, 중부 칼리만탄의 우동일·김혜경 선교사 가정, 팔랑카라야에서 활동 중인 김인숙 수녀, 허정숙 수녀 등 교민 및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차례로 청취했다.

나성문 회장은 칼리만탄 전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업과 사역에 헌신하는 한인동포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칼리만탄한인회가 앞으로도 지역과 직종을 넘어 모든 교민이 서로 연결되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 | 사회

데일리인도네시아 선정 2025년 10대 뉴스

2025년은 인도네시아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온 한 해였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대규모 투자와 산업 전환이 현실의 수치로 확인됐다. 동시에 기후 재난, 도시 문제, 사회적 갈등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데일리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과 이슈를 되짚고자 정책 방향·경제 구조·사회 변화의 맥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국내 주요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 현지 취재 내용을 종합한 뉴스는 2025년을 이해하는 단서이자, 2026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좌표이다. 2025년, 인도네시아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기록이자 정리로서, 데일리인도네시아의 10대 뉴스를 전한다.

노동자 대량 실직 속 지난 8월 말 대규모 반정부 시위

지난 8월 말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주택 수당 지급과 정부 정책(중세,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전국적인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 노동자 대량 해고로 고용이 불안 상황에서 노동자와 대학생이 참여한 시위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격화되어 국회의원사당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 방화, 차량 파손 등이 있었고, 경찰 장갑차 사고로 배달 기사가 사망하며 시위가 더욱 격렬해졌다. 이 시위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시민들은 국회의원 특혜 폐지 및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급식 먹고 집단 식중독...대통령 핵심 공약 위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이 잇따른 집단 식중독으로

위기를 맞았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4개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먹은 학생 1천7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9월 22일 반둥에서 학생 470명이, 지난 24일에는 수카부미에서 3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580명이 증상을 호소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도 서부자바주 다른 지역에서 7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수마트라섬 대홍수' 사망자 1천명 넘어...218명 실종

지난 11월 말부터 시작된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천명을 넘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천3명이 숨지고 21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수는 아체주를 비롯해 북부수마트라주와 서부수마트라주 등 3개 주 52개 지역에서 5천400명에 달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공공시설 1천200곳, 의료시설 219곳, 교육시설 581곳, 종교시설 434곳, 다리 145개 등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각한 아체주에서는 60%가량이 여전히 정전 상태고, 많은 이재민이 몰린 임시 대피소는 식수와 의약품 등 구호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쩰 헤라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부임

지난 9월 제쩰 헤라완(Cecep Herawan) 신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업무 시작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제쩰 헤라완 대사는 다자외교, 아세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교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국에서 부대사 근무경험도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중·러 주도 브릭스 합류...10번째 정회원국

인도네시아가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 주도 경제 협력체인 브릭스(BRICS)의 열 번째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아세안 최대 규모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의 합류로 브릭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중국과 러시아 등 5개국으로 출범한 브릭스는 최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등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여 세를 불리고 있다.

중국 대출로 건설한 고속철...'개통 2년' 실적부진 속 '빛폭탄'

2023년 10월 개통해 자카르타-반둥 구간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한 고속철도 후시(Whoosh)가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를 부채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프라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야심작 후시의 개통 2년간 실적을 돌아보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일대일로' (BRI) 사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니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최근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해고, 잇따른 공장 이전, 수출 실적 악화라는 삼중고가 덮쳤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한 내부 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이중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결과다.

신수도 2단계 본격 착수... 입법·사법 단지 등 총 12조 루피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래 수도 누산타라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입법·사법 구역 개발이 공식적으로 건설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정부가 누산타라 2025~2029년 2단계 사업 관련한 20건의 모든 계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4일 정부는 신수도 누산타라 2단계 사업 관련해 추가로 8개

계약에 서명했으며, 앞서 같은 단계의 12개 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총 20개 계약이 완료됐다. 이로써 동부칼리만탄에 조성 중인 신수도 핵심 지역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입법·사법 구역 개발을 위해 배정된 총 예산은 12조 루피아이며, 다년도 자원 조달 방식으로 집행된다.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단지 가동

롯데케미칼은 약 39억5000만달러를 투입해 인도네시아 반뜰주 켈레곤시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구축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중 최대 규모로 지난 11월 준공식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축구장 150개 크기의 110ha(헥타르) 규모 단지는 연간 에틸렌 100만톤, 프로필렌 52만톤, 폴리프로필렌 35만톤, 부타디엔 14만톤, BTX(벤젠·톨루엔·자일렌) 40만톤을 생산한다. 2022년 착공해 올해 5월 완공했고 지난달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프라보워 정부 출범과 확장적 재정 정책

2025년 인도네시아는 신정부인 프라보워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신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는 무상 급식, 건강 검진, 공공 주택 개발, 식량 안보 등 정부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지난 9월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을 예금보험공사 사장 출신인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로 전격 교체해 확대 재정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안정 대신 제도를 택하다: 하비비 시대를 다시 보다

조연숙 |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인도네시아 제3대 대통령 바하루딘 유습 하비비는 흔히 ‘과도기 대통령’으로 불린다. 그는 1998년 5월 21일부터 1999년 10월 20일까지, 약 1년 5개월, 모두 517일 동안 대통령직을 맡았다.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직후 나라가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 잠시 권력을 맡았다가 물러난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 짧은 재임 기간만으로 하비비의 역할을 가볍게 넘기는 것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비비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은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된다. "안정을 우선할 것인가, 제도를 먼저 세울 것인가."

517일, 혼란 속에서 선택해야 했던 시간

1998~1999년 인도네시아 사회는 말 그대로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는 무너졌고, 통화 가치는 급락했다.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수십 년간 이어진 정권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당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던 한인들에게도 이 시기는 불안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치안이 흔들렸고, 환율은 예측할 수 없었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과 생업을 지켜야 했다. 많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장의 안정’이었다.

통제 대신 제도를 택하다

이런 상황에서 하비비는 강한 통제로 질서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민주화로의 이행, 즉 개혁(Reformasi)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정치범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고, 언론 허가제를 폐지해 언론이 다시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회의 목소리를 다시 밖으로 끌어내는 조치였다.

또한 정당 설립을 허용해 여러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하비비 자신은 수하르토 체제의 핵심 정당이었던 골카르(Golkar) 출신이었지만, 정치 경쟁이 가능한 틀을 여는 데 동의했다. 이후 총선과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 것은 이 시기의 결정 덕분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에 크게 의존하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의 독립성을 강화해, 통화 정책이 정치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되도록 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선택이었다.

인권 문제와 동티모르, 피하지 않은 선택

하비비 정부는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문제도 외면하지 않았다. 1998년 5월 사태 이후 불거진 중국계(화교)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에 대응해 여성국가위원회(Komnas Perempuan)

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국가가 사회적 폭력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였다.

가장 큰 논란은 동티모르 문제였다. 하비비는 1999년 동티모르에서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정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에게 동티모르는 국가의 일부였고, 분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이 문제로 큰 불안을 느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자, 한인들 사이에서는 “한인이 인도네시아 분열을 지지한다고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퍼졌다. 일부는 비난이나 충돌 가능성까지 염려해야 했다. 결국 한인회는 한인들의 모금을 통해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고,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안정은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하비비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그는 동티모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계속 걸림돌로 남을 것이라 판단했다. 중국계 차별 문제와 중국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역시 같은 기준에서 다뤘다. 감정에 기대기보다, 제도와 인권의 문제로 접근했다.

오늘의 인도네시아에 남는 의미

안정만 놓고 보면 하비비의 선택은 위험해 보였다. 실제로 그의 결정은 사회적 긴장을 키웠고, 그 부담은 외국인 공동체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사회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을 마련한 대통령이였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다시 효율과 속도,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제도와 인권, 권력에 대한 견제가 쉽게 뒷전으로 밀린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비비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비비는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보다 제도를 먼저 선택한 대통령이였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겪었던 불안의 기억까지 함께 놓고 본다면, 그의 517일은 사소하게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시작된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인도네시아에서 출범식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제공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출범식이 2025년 12월 11일 오후 3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다리아시티 웨라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자문위원 총 69명(현장 참석 38명, 온라인 참석 31명)을 비롯해 사무처 관계자 5명, 초청 인사 15명 등 총 89명이 참석해 제22기 동남아남부협의회회의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정제의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간사가 사회를 맡아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를 비롯해 김종현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이강현 코참(KOCHAM) 회장, 김태화 체육회 회장 등 주요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사무처에서는 이오갑 과장이 참석했으며, 특별 강연자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임명장 인수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이정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장과 정제의 간사, 이증구 싱가포르 지회장 총 3명이 대통령 임명장을 인수받았다. 해당 인수식은 박수덕 대사대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엄숙하게 진행했다. 이어 나머지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이루어져 제22기 자문위원들의 공식적인 임명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번 기수에서 새롭게 임명된 간부 21명에 대한 소개와 축하의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신임 간부들은 향후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회의의 정책 자문과 조직 운영, 공공외교 활동을 이끌 핵심 인력으로서 기대를 모았다.

이정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해외 동포사회에서 확산시키는 것이 민주평통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제

22기는 화합을 바탕으로 소통과 연대, 그리고 실천 중심의 자문 활동을 통해 재외국민 사회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대리는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태지역 부의장은 이어진 축사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공공외교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제22기 동남아남부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특강에서는 ‘Run to End’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 정세 속에서의 통일 담론을 심도 있게 조망했다. 김 교수는 “통일은 단기간의 목표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정”이라며,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재외동포 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번 출범식은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제22기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는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다양한 정책 자문과 교육, 교류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의 열정, 자카르타에서 빛나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성료

- 재인니 선수단, 금 3·은 3·동 3 획득하며 ‘종합 4위’ 쾌거
- 김태화 회장 “한계 넘은 도전, 동포사회의 자부심 증명”
- 스포츠 교류의 장... 마르시아노 KONI 회장 참석해 축하

지난 10월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열정이 자카르타에서 감동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김태화)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 자카르타 리츠칼튼 메가 꾸닝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화 체육회장, 신규태 선수단장, 김중헌 한인회장, 양영연 명예회장을 비롯해 마르시아노 노르만(Marciano Norman)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KONI, Komite Olahraga Nasional Indonesia) 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단 150여 명이 참석해 종합 4위라는 값진 성과를 자축했다.

땀으로 일군 금빛 낭보, ‘종합 4위’의 저력

이번 체전에서 재인니 선수단은 총 146명(임원 91명, 선수 55명)이 8개 종목에 출전, 금메달 3



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해외동포 부문 종합 4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태권도 종목의 김인다 선수(+67kg급 2연패)와 김아리 선수(-67kg급), 볼링 마스터즈의 정태민 선수가 금빛 낭보를 전하며 선수단의 사기를 드높였다. 해단식의 하이라이트였던 포상금 전달식에서는 이들 금메달리스트에게 각각 2,000만 루피아의 격려금이 전달되어 큰 박수를 받았다.



포상금 전달식 [금메달 리스트]

감사패 코데코, 정필립 회장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이어지는 격려와 찬사

김태화 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아쉬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모습이 곧 우리 동포사회의 저력”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종헌 한인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해 온 여러분이 바로 민간 외교관”이라며 “선수단을 위해 헌신한 김태화 회장님과 신규태 단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공을 돌렸다.

양영연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해를 거듭할 수록 성장하는 선수단의 기량이 자랑스럽다”며 “스포츠를 통해 한인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대리 또한 “이번 성과는 동포들의 끈기와 열정을 증명한 결과”라며 선수단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스포츠 외교의 장으로 승화

이날 해단식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체육계의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체육계의 수장인 마르시아노 노르만 KONI 회장은 “프라보워 정부의 국정 철학인 ‘아스타 치타(Asta Cita)’에서도 스포츠 성과는 중요한 과제”라며 “아시아 스포츠 강국인 한국의 엘리트 체육 노하우를 공유받는 등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과 오푸스 챔버 오케스트라(Opus Chamber Orchestra)의 축하 공연이 더해져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선수단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2026년 대회를 기약하는 힘찬 함성과 함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인뉴스 편집국





「다함께, TOGETHER」로 하나 된 예술의 장 문예총 제8회 종합예술제 자카르타서 성황리에 개최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 김혜정 수석부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회장 김준규, 이하 문예총)가 주최한 제8회 종합예술제가 지난 12월 6일(토) 오후 2시 자카르타 롯데 에비뉴 아이스펠리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교민 사회와 현지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문예총은 2008년 창립 이후 전시·공연·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양국 간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매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며 교민 문화예술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공연과 전시를 통해 교민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다져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활동이 제한된 시기에도 각 단체는 예술적 내실을 다지며 재도약을 준비해 왔고 그 결실이 이번 제8회 종합예술제로 이어졌다. 문예총은 종합예술제

개최에 그치지 않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그린런(Green Run) 행사,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경일 및 공식 문화행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문화 확산과 교민 사회의 공공 문화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은 문예총이 교민 사회와 공공기관을 잇는 문화예술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12월 5일(금)에는 전시 개막식이 열려 예술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꿈갤러리협회 ▲한인꽃꽂이회 ▲묵향 민화협회가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고 깊이 있는 문화 감상의 시간을 제공했다.

12월 6일(토) 행사는 사회자 박시은의 개막 멘트로 시작됐다. 김준규 문예총 제10대 회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의 축사와 이지완 한인회 수석부회장의 격



려사가 차례로 이어지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후 내빈 소개와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이 이어지며 종합예술제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다채로운 장르로 채워진 공연의 문은 김준규 문예총 회장(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의 시 낭송 <그리운 안졸>로 열렸다. 시와 영상이 어우러진 오프닝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예술제의 분위기를 차분히 이끌었다. 이어 재인니 자카르타 한인 오케스트라(KISO, 대표 허민경)는 <The Way to School>, <Hollo Arirang>, <Golden>을 연주하며 웅장하고 섬

세한 선율로 오프닝 무대를 채웠다. 자카르타 한인무용단(단장 정방울)은 남도 특유의 흥과 기품이 살아 있는 남도 소고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JKWC 자카르타 한인 여성 합창단(지휘 송예선)은 <홀로 아리랑>, <최진사댁 셋째 딸>을 통해 합창의 깊이 있는 울림을 전했다. 이어 색소폰 동호회 이강용 회장은 <Danny Boy>,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연주하며 무대에 부드러운 감성을 더했다. JKCC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지휘 송예선)은 <크리스마스



스에는 축복을), <도레미송(Sound of Music OST)>, <내 나라 우리 땅>을 밝고 순수한 목소리로 선보여 관객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특별 무대로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NJ) 무용단이 참여해 부채산조를 선보였다. 이번 무대는 정방울 자카르타 한인무용단 단장의 지도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의 협조로 준비된 공연으로 양국 문화 교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재인니 한인 음악협회(회장 유은영)가 <신아리랑(성악)>, <Christmas Celebration>, <La La Land Medley>를 선보이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대의 불이 하나둘 꺼진 뒤에도 이날의 예술이 남긴 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노래와 몸짓, 시와 선율로 이어진 시간은 단순한 이틀 간의 행사를 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의 삶과 기억을 조용히 기록하는 순간이 됐다. 서로 다른 세대와 배경이 예술 앞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장면들은 ‘다 함께’라는 가치가 지금도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제8회 종합예술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문화예술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매년 이어져 온 종합예술제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문예충은 앞으로도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사회와 호흡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문화예술의 다리 역할을 묵묵히 이어갈 것이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디아스포라 예술의 정점을 보여줄 제9회 종합예술제를 기대해 본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K-Product Showcase’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 및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판촉전 ‘K-Product Showcase Indonesia’를 오는 2025년 12월 17일(수)부터 12월 21일(일)까지 인도네시아 롯데몰 자카르타, 코리아(KOREA) 360 메인 아트리움에서 개최한다.

국내 우수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코리아 360

코리아 360은 한류 콘텐츠를 비롯한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및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의 중심이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설립된 관계부처 해외 홍보관이 다. 총괄기관인 콘진원을 비롯해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총 8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K-콘텐츠, 리빙, 푸드, 뷰티 등 총 4개 분야의 우수브랜드 지원

이번 판촉전에서는 심사를 통해 잠재력이 검증된 K-콘텐츠, 리빙, 푸드, 뷰티 등 총 4개 분야, 20여 개의 우수브랜드들이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K-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 및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 기간 동안에는 현지 주요 유통사·수입사·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우수브랜드와 바이어 간 상시 상담이 열릴 예정이다.

샤이니 민호, 하이라이트 등 유명 K팝 아티스트 공연 참여 기회도

판촉전이 열리는 코리아 360 메인 아트리움에



방문하여 100,000 IDR (루피아)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고 개인 SNS에 영수증을 인증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2026년 1월 17일(토)에 열리는 유명 K팝 아티스트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 티켓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연에는 샤이니 민호, 하이라이트 등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K팝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공연이 열리는 NICE (누산타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전시 부스를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지난 호에 이어

약초꾼 이야기 2화 - 석산(4)



“아빠, 벌이 많아요. 무서워요.”

백이 오빠는 곧장 벌이 날아간 방향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외침이 들렸다.

“아버지! 여기요!”

그곳엔 목청꿀, 그것도 최고로 치는 소나무 목청꿀이 있었다. 아버지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 꿀을 채취하셨고, 한보자기 가득 담긴 꿀을 천천히 내려보내셨다. 나무를 향해 세 번 절을 올리고 말씀하셨다.

“석청꿀에 버금가는 귀한 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백이를 칭찬하셨다.

“오늘 큰일 했다.”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요, 뭐.”

오빠는 씩스러워하면서도 웃었다.



[약초 지식] 소나무 목청꿀

- 소나무 속 빈 곳에 형성된 벌집 꿀로 인후부 진정과 기침 완화
- 숙련된 채집 기술이 필요하며, 나무와 지형을 읽는 눈이 필수

[약초 지식] 석청꿀

- 바위틈 야생벌이 모은 꿀. 미네랄·효소가 풍부하고 항균·항염 작용과 원기 회복에 좋다.
- 절벽 지형 채집이 많아 위험도가 높아 숙련된 약초꾼만 접근한다.



목청꿀을 보니 예전에 석청꿀을 채집했던 장소가 떠올랐다.

‘날이 선선해지면 아이들과 석청꿀을 캐러 가야겠다.’

추수철, 우리는 험한 산을 넘어 많은 양의 석청꿀을 얻어 돌아왔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내가 고열로 쓰러진 지 이틀이 지났다. 다행히 사흘째 눈을 떴지만 말투와 눈빛이 낯설었다. 기억을 되찾은 것이다. 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랐다.

‘귀한 집 여식이여, 배우자로 삼지 마라. 결국 상처만 남는다.’



서상영 | 미르한의원 원장

다음 날, 아내는 자신이 입고 왔던 옷을 찾더니 “모래 장에 같이 가자” 고 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아내가 떠나고 무심한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산행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 나는 뒤뜰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꿈인지 환영인지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냐. 이제 내 말 뜻을 알겠냐?”

“어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놔줘라. 애미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그게 하늘 뜻이라면...”

“어머니! 어머니!”

다음 호에 이어

2026

謹賀新年

숨가쁘게 달려온 2025년을 뒤로하고, 찬란한 태양의 기운을 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밝아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미르한의원을 믿고 건강의 여정을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품으신 모든 소망이 거침없이 질주하여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미르한의원 또한 더욱 정성 어린 진료로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든든히 보좌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재 중인 '약초꾼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즐기는 골프를 하자



손상현 | '자카르타의 아침' 블로거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 조금 더 여유로운 일상,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할 것이다. 모두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5년 골프계에서는 로리 매킬로이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과 스코티 셰플러의 4년 연속 올해의 선수 수상이 가장 큰 이슈였다. 꾸준함과 안정된 실력으로 100주 이상 세계 정상을 유지해 온 스코티 셰플러의 업적이 단연 돋보였지만, 11년 만에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로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인생의 커다란 과업을 완성한 로리처럼, 새해에는 골프 스코어에 대한 부담을 벗어던지고 모두가 조금 더 골프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새해 나의 바람도 “올해는 골프를 즐기자”이다. 스코어에 끌려다니지 않고, 실수에 자책하지 않으며, 필드 위에서 온전히 나만의 골프를 즐기고 싶다는 바람이다. 비록 동반자의 시선, 스코어카드에 적히는 숫자, 잘 쳐야 한다는 압박이 라운드 내내 따라다니고, 드라이버 샷이 한 번 OB가 나면 라운드 전체가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며, 짧은 퍼팅 몇 개를 놓치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고 싶다.

이러한 부담감의 대부분은 **잘못된 목표 설정**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스코어, 비거리, 동반자와의 비교 같은 결과에 비중을 둔 목표는 즐거움보다 심리적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말 골퍼는 짧은 시간 안에 독학으로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빨리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골프 자체가 재미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골프를 즐길 수 있을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목표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예를 들면, ‘오늘은 프리샷 루틴을 지킨다’, ‘끝까지 같은 스윙 템포를 유지한다’, ‘동반자와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 같은 목표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결과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반면,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자신감이 생겨 스윙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군가의 삶을 특별하거나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다. 골프에서도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관된 루틴과 스윙은 샷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주고, 그 믿음이 긴장감을 낮춰 준다. 18홀 내내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2025년 마스터스 대회에서 로리 매킬로이의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라. 그는 첫 홀부터 연장 승부로 치러진 마지막 홀까지 루틴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몇 차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동일한 루틴을 유지했기에 우승할 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는 TV 중계를 통해 투어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즐겨 보는데, 반복해서 보다 보면 마치 나도 그들처럼 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뇌리에 박혀 마음은 이미 프로가 되어 있다. 하지만 라운드를 나가 보면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 기대치의 80%만 달성하더라도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해 보자.

드라이버 비거리가 조금 짧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자. 아직 공이 살아 있고, 세컨드 샷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투온이 되지 않더라도, 벙커나 러프에 빠지더라도 다음 샷을 할 수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어프로치는 홀 반경 5미터 정도에만 붙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자. 칩인 버디를 떠올리는 순간, 뒤땅이나 토핑으로 더 큰 실수를 부를 가능성이 커진다. 기대 수준을 낮추면 마음이 가벼워져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경험을 이미 많이 해보았을 것이다.

실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투어 프로조차 실수를 하는데, 아마추어 골퍼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매킬로이도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고 박세리, 박인비 선수도 수많은 실수를 극복하고 나서야 세계 정상에 올랐다.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의 태도이다. 아마추어 골퍼는 단순한 실수 한 번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샷을 하고 나서 "왜 이러지?"라고 자문한다. (본인이 샷을 했으니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인정하고 빨리 잊는 것이 가장 좋다. "골프는 다음 샷(Next shot)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OB 한 번, 뒤땅 한 번, 벙커 탈출 실패 한 번이 라운드 전체를 평가하게 두지 말자. 한 샷은 한 샷일 뿐, 골프는 18홀의 이야기다.



그리고 **동반자와의 비교를 멈추자.** 어떤 일یدن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즐거움은 사라진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에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절대적인 만족보다 상대적인 행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골프에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 골프 라운드를 나왔는지를 떠올려보자. 비록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오랜만에 친구,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하루만큼은 일과 걱정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스코어에 대한 부담보다 '오늘 하루 얼마나 힐링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운드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걱정, 근심, 욕심은 버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연습이 있다. 멋진 스윙폼이 나 긴 비거리가 아니다. **짧은 거리의 안정감**, 즉 퍼팅과 어프로치다. 아마추어 골퍼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티샷의 미스도 있지만, 쉽게 끝낼 수 있었던 홀에서 계속 샷을 남기는 경험이다.

투어 프로 선수들은 연습 시간의 50% 이상을 쇼트게임(어프로치, 퍼트)에 투자한다고 한다. 일관된 리듬과 균형 감각으로 그린 주변에서 무리하지 않고 편 주위로 공을 보내며, 1~3미터 거리에서 자신감 있게 퍼트한다. 그렇다고 연습 방법만 프로 선수들처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어드레스와 스윙 자세, 공의 위치, 스윙 시퀀스를 지키는 일 등 기본기를 꾸준히 몸에 익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스코어보다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며 웃음이 많은 골프를 해보자. 그렇게 라운드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스코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골프도 진정으로 즐기는 취미가 될 것이다.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요!’

- 2025학년도 JIKS 나눔알뜰장터 개최 -



JIKS 제공

2025년 12월 17일, 자카르타한국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5학년도 JIKS 나눔알뜰장터’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눔알뜰장터에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파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물건이라도 다른 친구들에게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물건을 항상 깨끗하게 쓰고 재활용하는 절약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 참여를 통해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행사는 1·3·5학년과 2·4·6학년으로 시간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1·3·5학년 학생들이 물건을 팔고 2·4·6학년 학생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그 후 2·4·6학년 학생들이 물건을 팔고 1·3·5학년 학생들이 구매하

는 활동을 교대로 하였다. 물건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은 미리 마련한 ‘사랑의 기부함’에 넣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였다. 학부모회에서도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부하여 주셨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JIKS 교직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고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였다. 학생들은 ‘사랑의 기부함’에 금액을 기부하고 기부 인증서와 뱃지도 받게 되어 더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한국학교 이선아 교장은 “여러분들의 나눔 실천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금과 함께 세완(SEWAN) 마을 「소망유치원」에 학생 대표들과 같이 가서 잘 전달하였다. 교장선생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받은 행사였으며, 「소망유치원」 측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하였다” 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나눔알뜰장터 담당 김나래 교사는 “학생들이 나눔알뜰장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참여해 줘서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자카르타의 밤을 수놓은 13인 색소포니스트의 금빛 선율 재인니 색소폰 동호회 '2025 송년 콘서트' 성황리에 마쳐

- 10일 아리온 호텔에서 13인 전원 무대 올라 감동 선사
- 20년 역사의 울림, 강희중·김우재·박의태·이강용 등 핵심 멤버 건재
- 세대 아우르는 다채로운 선곡으로 관객 열광

2025년의 끝자락에서 자카르타의 밤이 20년 세월이 빚어낸 중후하고 감미로운 색소폰 선율로 물들었다. 지난 10일(수) 저녁 6시, 자카르타 남부 끄망에 위치한 아리온 스위트 호텔(Arion Suites Hotel Kemang, 구 스위스벨 호텔)에서 '재인니 색소폰 동호회(회장 이강용)'가 주최한 <2025년 송년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는 2003년 창단 이래 20여 년간 한인 사회와 함께해 온 이들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타국에 청춘을 바치면서도 끝내 낭만을 잃지 않은 이들의 연주는 '디아스포라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객석을 가득 메운 교민들은 삶의 애환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들의 목직함 울림에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13인의 색소포니스트, 20년 역사가 빚어낸 '환상의 호흡'

이날 무대에는 이일하 강사의 지도로 13명의 회원이 전원 참여했다. 출연진 상당수가 10년 넘게 활동해 온 베테랑이라 놀랍다. 공연은 이강용 회장을 중심으로 이상일, 강희중, 박의태 고문이 든든하게 무게중심을 잡았고, 이일하 강사의 수준 높은 '캐럴 메들리'가 오프닝을 장식했다. 이어 김우재, 최병우, 김주철 회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다져온 탄탄한 내공으로 테너와 알토를 오가는 능숙한 연주를 선보였다. 여기에 이병수, 송동근, 조대호, 김송안, 하비 모노(Habi Mono) 회원의 열정과 감성이 더해지며 무대는 더욱 풍성해졌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이들은 눈빛만 교환해도 통하는 앙상블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아마추어를 넘어선 실력, 정식 콘서트 제안까지

이날 콘서트는 뷔페 식사 후 저녁 7시에 본 공연이 시작되어 3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관객들은 지루할 틈 없이 연주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한인은 “이 정도의 무대 구성과 실력이라면 더 이상 아마추어 동호회의 발표회가 아니다”라며 “향후 정식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콘서트를 열어 교민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해 달라”는 훈훈한 제안을 건네기도 했다. 이는 동호회 회원들의 뛰어난 기량을 증명하는 대목이었다.

향수와 희망을 노래한 장르 초월 레퍼토리

색동회가 고심해 선정한 레퍼토리는 관객들의 폭넓은 취향을 저격했다. ‘돌아가는 삼각지’, ‘향수’, ‘하숙생’, ‘선창’ 등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가요 명곡부터, ‘The power



of love’, ‘Let it go’, ‘Cherry pink and apple blossom’ 등 세대를 아우르는 팝송, 그리고 ‘산다는 건’, ‘너를 위해’ 등 서정적인 발라드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선곡이 돋보였다.

공연의 피날레는 전 출연진이 함께한 합주였다. 13명의 색소포니스트가 만들어낸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나는 행복한 사람’의 웅장한 사운드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이민 생활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동지애가 묻어나는 감동의 무대였다. 특별 출연한 이창환 님의 보컬 또한 공연의 깊이를 더했다.





음악으로 20년 우정... 교민 삶의 심포 될 것

행사를 주관한 이강용 회장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음악을 사랑하고 함께해 준 회원들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무대가 가능했다” 며, “앞으로도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통해 타국 생활의 애환을 달래고 교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수 동호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재인니 색소폰 동호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교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하며, 신규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 가입 문의: 회장 이강용 | 0811-977-1985

한인뉴스 편집국





12월 갑근세는 TER 대신 소득세법 제 17조 세율 적용 (PMK 168/2023)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인도네시아 『한인 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월 「김재훈의 세무 Talk」를 통해 인도네시아 세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급여와 직결된 중요한 갑근세(PPh 21) 계산 규정에 대해 이번 달에는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갑근세(PPh 21) 계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 정부령 제58/2023호 공표와 함께 마련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복잡한 연환산 방식 대신, 2024년 1월부터는 한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유사한 TER(Tarif Efektif Rata-rata, 월평균 실효세율) 제도가 도입되어, 월 급여에 TER를 곱하는 방식으로 갑근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1조 갑근세는 TER를 적용하지만, 12월 과세기간의 갑근세는 TER가 아닌 소득세법 제17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같은 별도의 ‘연말정산’ 제도는 없으며, 1월부터 11월까지 TER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12월 신고 시 소득세법 제17조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갑근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원천징수한 갑근세 합계가 연간 확정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고용주)는 초과 납부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고용주)는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원천징수 증명서(BPA1)를 소득 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령 제7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급여 및 갑근세 정산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무 이슈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



우지수 |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어제저녁부터 이유 없이 배가 아팠다. 저녁 식사 전에 아프기 시작한 걸 보니 뭘 잘못 먹거나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저녁 식사 후에도 계속 아픈 걸 보니 배가 고파 쓰린 것도 아닌 듯했다. 아파져 오는 모양새는 분명 위장이나 대장의 탈이 아니었다. 여자들은 매달 반복되는 아픔이 있으니 혹시 그건가 하고 다시 봐도 날짜가 전혀 아니었다.

정확히 뭘지 모를 복통으로 불편한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니 어제 아침부터 잔소리를 듣고 뽀로통하게 있던 큰 아이마저 병원에라도 다녀오라며 걱정했다. 나도 그러고는 싶었지만, 몸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이 묵직하고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니 만사가 다 귀찮게 느껴졌다. 증상은 한 마디로 뽀족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 병원에 간들 뭐라고 말해야 할지, 피병처럼 보이거나 앓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아랫배가 사르륵 아파오는가 싶더니 이어서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시작됐고, 또 갑작스레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가 다시 쥐가 난 듯 자글거리는 통증이 아랫배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러니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온몸이 쭉쭉 처지고, 근육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다.

아이들이 다 나간 뒤에는 일부러 “아-, 아-!” 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억지로 참는 게 소용없어 보여 아픈 만큼 소리나 질러보지, 싶었다. 그래도 못 참겠으면 병원으로 가겠다고, 뭉그적대며 침대로 다시 기어올랐다. 고통 속에서 살끔 잠이 들었다 깬 때, 좀 전까지 얼마나 아팠는지 헛갈릴 정도로 많이 좋아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나아져 정오를 지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졌다. 진통제 한 알 먹지 않았는데 믿지 못할 만큼 나아지고 있으니 이리다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고 불

안해할 즈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

그리고 혼자서 깨닫는다.

'큰애 낳던 날이 다가오느라 그랬구나!'

사실 나는 예민한 편이 아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둔한 편이다.

나는 내가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오는지 몰랐고, 감자 싹의 독성인 솔라닌 중독증이 있는지도 몰랐다. 햇빛 알레르기와 밴드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는 켈로이드성 피부인지도 몰랐다. 그 밖에도 이 나이가 되도록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내 몸에 대해서는 참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둔한 몸뚱이도 하나씩 예민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니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나의 엄마는 우리 자매들을 낳은 달이 되면 꼭 한번 배가 아프다고 하셨다. 그걸로 '아, 우리 00이 낳은 달이구나!'를 안다고 하셨다.

"에이, 그게 말이 돼?"

제일 강하게 부정하던 사람이 나였는데, 어느덧 내가 그런 나이가 되었다.

큰애 생일이 내일, 모레라 십수 년 전 산기가 있었던 그날 즈음해서 배가 아팠었나 보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내 몸에 하나의 기억을 새기는 것이다. 치매가 걸려 모든 걸 잊어도 딸, 아들 이름만은 잊지 못하는 어른들을 보면 자기 자신은 놓아도 끝끝내 놓지 못하는 것이 자식이라는 존재인가 싶다.

기대에 못 미치는 딸아이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린 미숙한 엄마도 엄마다. 생일 앞둔 아이를 혼내놓고 미안함과 속상함에 눈치나 보는 엄마도 엄마다. 하루 이틀 빠쳐있어도 될 만한 사춘기의 딸이 돌아서서 엄마부터 걱정해 주는 마음에 속이 아려오는 엄마도 엄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비로소 어른이 되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내 속까지 그대로 비춰 보이는 거울 하나를 받아 드는 일이다. 내가 보여 좋았다가, 내가 보여 미웠다가, 내가 보여 근심했다가 돌아서서 다시 나를 찾아내려 애쓴다.

알찬 수박보다 작은 무게로 태어난 핏덩이가 어느덧 전쟁 같던 입시를 치르고 사회로 나아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어른이 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야 내 몸은 큰 아이 낳던 날을 기억해 낸다. 내 속에서 꼬집어낸 지 스무 해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 다 밀어내지 못했나 보다. 어쩌면 후회와 반성과 미련의 크기만큼 더욱 선명해지는 고통으로 나는 매년 이맘때면 큰 아이를 낳고 있겠다. 엄마는 아이보다 느린 속도로 자라는 사람인가 보다.

인도네시아 한인 문학의 산실, 제7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성료

- 7년째 이어온 집념의 결실...김준규 회장, 한인 문예총과 문협 이끄는 '문화 수장' 면모 빛나
- 척박한 이국땅에서 피워낸 문학의 향기 동인지 제10집 발행 쾌거



학생기자 한동훈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0학년

지난 12월 13일 오후 3시, 자카르타 청해수산 2층에서 제7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이하 인니문협)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동남아 지역 한인 문학 신인들을 발굴하는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역시 많은 신인이 응모하여 그 위상을 입증하였다.

인니문협은 이번 심사가 문학적 성취도와 독창성, 주제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들에게는 인니문협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어 향후 인도네시아 동포 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창작을 이어갈 발판이 마련되었다.

시 부문에서는 김현진 씨의 「전자레인지의 천체관측」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박기순 씨의 「다섯 번의 산책」이 우수상을, 김부건 씨의 「저녁 길목」과 이지완 씨의 「천해(天海)의 낙원」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필 부문은 장원정 씨의 「긴 단상-엄마와 딸」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성재경 씨의 「바람이 건네는 감사」가 우수상을, 윤형일 씨의 「휴가」가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단편소설 부문에서는 김보미 씨의 「당신의 신호등은 안녕하십니까」가 우수상을 받으며 서사 구성 능력을 인정받았다. 학생부에서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10학년 한동훈 학생의 「나를 움직이는 두 번째 처음 - 마음의 근육이 된 기억」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김준규 회장은 축사에서 “시 부문과 수필에서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작가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잊지 말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물을 더 깊이 관찰하고 언어 사용의 수준 향상과 상상력에 혼을 불어넣어라. 문학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다.

7년의 독심, 김준규 회장의 헌신적인 리더십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배경에는 인니문협을 이끄는 김준규 회장의 집념이 있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문인협회 지부장을 맡아 한인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현재 재인도네시아 한인문예총 회장직을 겸임하며 인도네시아 한



인 문화예술계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준규 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도문학상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문학을 사랑하는 한인들의 열정 덕분이다.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를 빛낼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시상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오랜 문필의 정을 쌓은 고이태복 시인을 기리는 묵념으로 먼저 떠난 문우를 아끼는 마음을 대신했다. 특별히 적도문학상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준 강희진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학평론가 강희진 교수의 극찬… “해외 한인 문학의 중심지”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고국에서 문학평론가 강희진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 교수는 총평을 통해 “수상작과 동인지에 수록된 작품들은 고국의 문학과 결이 다른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삶의 체취가 묻어나는 특색 있는 수작들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적도문학상이 해외 한인

문학의 중심지가 되어달라”며 인도네시아 문인들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꺼지지 않는 촛불 동인지 제10집 발간 축하

시상식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문인들의 정성이 담긴 동인지 제10집 발행이 큰 주목을 받았다. 동인지 10집 발행은 인도네시아 한인 문학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김준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과 디지털 문화의 확산 속에서도 동인지 제10집 발행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문학의 뿌리가 견고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난이 남긴 것을 맛보라,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감미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괴테의 말을 인용해 문인들을 격려하고 건필을 응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 문예총, 한인 포스트, PT. CIPTA ORION METAL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치러졌다. 한인 사회 주요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은 적도문학상이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잘 견디고 잘 남아 있는 삶> 이것이면 새해를 여는 데 충분하지 않은가?

권영경 | 『식물일기』 저자



손 안에 노란 모과 한 알.

아이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왔다. 친정 집 동네를 산책하다가 떨어진 이 노란 열매의 향을 맡아보지 않았다면 상상한 가지만 남은 이것이 모과나무였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수확의 계절이 한참 지났는데 딱 한 알, 가지에 홀로 남아 있는 열매가 유난히 눈이 가 자꾸만 올려다 본다. 가장 빛나는 시기를 지나 조용히 매달려 있는

잘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잘 견디고 잘 남아 있는 삶도 새해를 여는 데 충분하다고

모과 열매 한 알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저 가지에 남아 있을 뿐이다.

겨울의 나무들은 대체로 그렇듯 말이 없다.

잎을 모두 내려놓은 가지들은 서로에게 더 이상 그늘이 되어주지도, 장식이 되지도 못한다. 식물들은 겨울을 이기려 들지 않는다. 다만 통과할 뿐이다. 잎을 더 이상 띄우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자라지 않는 결정을 기꺼이 하며, 성장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다. 식물들에게 겨울은 실패가 아닌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이다.

일 년에 한 번, 한국의 가족들을 방문하는 여정은 늘 반갑지만 때론 조심스럽다. 집은 그대로인데, 부모님의 걸음은 조금씩 느려지고, 대화의 호흡은 길다. 반가움은 즉각적이지만, 시간의 무게는 늘 뒤늦게 찾아와 무거운 기분을 안겨 주기도 한다. 그렇게 매 해 달라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나는 종종 겨울 나무를 떠올린다. 예전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덜 드러내고 더 남는 것. 속도는 줄지만, 밀도는 짙어 지는 삶의 무게.

그래서 그런지 모과나무에 남은 한 알의 열매가 나에게 부모님의 기록처럼 보인다.

식물의 세계에서 겨울은 공백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멈췄을 뿐, 생은 방향을 바꾸어 지속된다. 뿌리는 여전히 토양 속에서 계산을 멈추지 않고 무엇을 저장하고 무엇을 버릴지, 봄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떤 욕심을 내려 놓아야 하는지 조용히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겨울은 식물이 가장 신중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내가 부모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그렇다. 특별할 것도 없고, 사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대부분이지만 함께 밥을 먹고, 조용히 산책을 하고,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이 효율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은 시간이 이상하게 자카르타로 돌아가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어 있다.

2026년이 밝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를 열며 다짐을 한다. 더 나아지겠다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더 많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식물의 시간표에는 그런 선언 같은 건 없다.

식물은 새해를 맞으며 더 많이 피우겠다 약속하지 않는다. 언제나 주어진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능한 만큼만 살아간다.

올해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더 애쓰는 새해가 아니라, 더 잘 남아 있는 새해. 더 빨리 가는 해가 아니라, 지금의 속도를 인정하는 해. 부모님을 바라보며, 겨울 나무를 바라보며, 나는 새해를 여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운다.

양상한 가지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친다. 따뜻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빛이다. 남아 있는 것을 남아 있게 하고, 떨어질 것을 억지로 붙들지 않는다.

한국을 떠나는 날, 나는 늘 비슷한 마음이다. 아쉬움과 감사,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마음.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집이, 가족들이, 이 시간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거창한 기도라기보다, 식물이 겨울을 건너며 품는 조용한 계산과도 같다.

새해를 여는 지금, 나는 크게 소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묻는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잘 지켜낼 것인가에 대하여.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가만히 두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모과 하나가 달린 겨울 나무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문장을 마음에 새긴다.

잘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잘 견디고 잘 남아 있는 삶도 새해를 여는 데 충분하다고.

이 문장을 품고, 다시 남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식물처럼, 소리 없이 새해를 열어야겠다.

I K Wind Orchestra,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음악으로 전한 위로

- 연말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생필품·식료품 및 자체 제작 교육 교구 등 선물 꾸러미 250여개 전달
- 단순 물품 후원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지속적인 연대 약속

I K Wind Orchestra 제공



마음에 울림을 남기는 연주를 들으며 기뻐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Indonesia Korean Wind Orchestra, (이하 I K Wind Orchestra, 단장 김종규)가 지난 11월 30일(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뽀작(Puncak) 지역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센터를 방문해 자선 음악회와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2년 전 ‘찾아가는 음악회’로 맺은 인연을 이어가는 세 번째 방문으로, 타지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80여명과 마음을 나누었다.

■ 음악으로 전한 위로… 마음에 울림을 남기다

이날 음악회는 I K Wind Orchestra의 전훈 지휘자의 지휘 하에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OST,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K-POP ‘아파트(APT.)’, 그리고 ‘He Leadeth Me’와 같은 성가곡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수준 높은 라이브 연주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고립된 일상에 지친 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활력을 선사했다.

■ 난민 80여명에게 전달된 250여 개의 선물꾸러미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졌다. I K Wind Orchestra 단원들과 학부모, 산하 기타교실 회원들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후원금과 더불어 생필품, 식료품, 의류, 과자, 문구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 250여 개를 마련했다. 특히,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난민 아동들을 위해 김현진 총감독이 직접 제작한 영어 명언 필사 노트, 알파벳 그림책, 음악 이론 교재 및 교구 등의 교육 물품이 전달되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생필품, 식료품, 문구 등으로
선물 포장하는 단원들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안고 돌아
가는 난민들



생일 축하 연주와 선물에 기뻐하는 난민아동들

■ “어려운 길을 뚫고 전한 사랑… 오길 잘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선희 악장은 “교통 체증을 뚫고 온 험한 길이었지만, 어려운 분들 손에는 선물 한가득, 귀에는 아름다운 선율, 마음에는 감동 한 움큼을 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악으로 하나 됨을 확인한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난민 센터의 권용준·김순덕 선교사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이토록 세심하고 풍성하게 준비해준 단체는 드물다”며 I K Wind Orchestra의 진정성 있는 나눔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응원과 사랑의 약속’”

I K Wind Orchestra 김종규 단장은 “이번 활동 역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난민들의 삶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연대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음악적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땅그랑에 위치한 난민학교와 센터의 방문과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에 참여한 백영미 센터장은 ‘다음 번에 방문했을 때 오늘 만난 난민들은 아쉽지만 다시 만나지 않길 바라며 얼른 제3국에 잘 정착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취업과 공교육 접근이 금지된 채 제3국 재정착을 위

해 평균 5~10년 이상을 대기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 I K Wind Orchestra의 이번 행사는 이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Indonesia Korean Wind Orchestra (I K Wind Orchestra)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로,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70여명의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 교민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현지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INDONESIA KOREAN

—WIND ORCHESTRA—

[행사 및 입단 문의] 김현진 총감독
0877-7520-7183 | 카카오톡 Joy7983
ikwindorchestra@gmail.com

[취재 관련] 음악센터장 백영미
0877-7520-7183



2025년 제13회 '외식인의 날' 골프대회 및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재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 제공

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연대와 도약' 다짐

재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회장 강진호)가 2025년 12월 2일 리버사이드 골프장에서 제13회 '외식인의 날' 골프대회 및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외식업계의 성과를 돌아보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상호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을 비롯해 한인 사회 주요 인사와 각계 귀빈들이 대거 참석해, 인도네시아 내 한식·외식업계의 위상과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경기 침체 속 한 해를 버텨낸 외식인들에게 보내는 감사

정기총회 개최 인사에서 강진호 회장은 2025년 한 해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식자재 비용 상승이 겹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 이었다고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장을 지키며 한식을 지켜 온 회원사 대표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강 회장은 “매출은 줄고 비용은 오르며 직원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맞이하며 한식과 외식업을 지켜 주신 사장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며 “협의회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기 위

해 앞으로도 더욱 현장 가까이에서 뛰겠다” 고 말했다.

운영 컨설팅 아카데미·공동구매·한식 홍보 활동 등 '실질적인 도움' 중심의 활동 소개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협의회가 추진해 온 주요 활동들도 함께 공유됐다. 협의회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회원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간식당 박형희 대표를 초청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인도네시아 한식 기업의 성공전략' 운영 컨설팅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식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어왔다.

또한 한식 저변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김치 만들기 체험, 김밥 만들기 체험 등 자체 한식 홍보 프로그램을 다양한 단체와 함께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특히 재인도네시아 한인 청년회와 외식업 협의회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 한 고아원을 방문, K-댄스, 그림 그리기, 한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한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 행사는 K-컬처와 K-푸드를 함께 알리며,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 회장은 “모든 회원님께 100% 만족을 드리지

는 못했을지라도, 집행부가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가 행사보다 작더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과 한식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한식 총연합회와 함께하는 ‘한식 글로벌 전략’ 공유

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는 세계 한식 총연합회의 일원으로서, 한식진흥원과 연계한 운영 컨설팅, 공동구매, 각종 협약 사업 등에 참여하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계 한식 총연합회의 주요 활동과 더불어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도 함께 소개됐다. 세계 한식 총연합회는 전 세계 한식당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포럼을 개최해 각국 한식당의 운영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식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강진호 회장은 “이미 일본과 태국은 국무총리 산하 기구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자국 음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세계 한식 총연합회 역시 현재 한식진흥원 산하를 넘어, 향후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한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협의회는 세계 한식 총연합회와 보조를 맞추어, 전 세계 속에서 인도네시아 한식당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골프대회,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골프대회는 회원사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연례 행사로, 올해 역시 많은 참가자가 조를 이뤄 라운딩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시상식과 경품 추첨이 이어지

며 행사장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협의회 관계자는 “제13회 외식인의 날 행사는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식 일정이 아니라, 우리 외식업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버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작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행사 말미, 강진호 회장은 다시 한 번 회원사와 귀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협의회와 향후 방향을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는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단체가 되겠다”며 “크고 화려한 구호보다, 작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발로 뛰고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제 13회 외식인의 날 골프대회 및 정기총회의 막을 내렸다.



폼 미쳤다, 비라바드라사나 전사 자세 3

전설 속의 전사, 비라바드라(Virabhadra)

사티(Sati)와 시바(Siva)가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사티의 아버지 닥샤(Daksha)는 사위를 무시하며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굴욕을 느낀 사티는 스스로 몸을 태워 죽음을 택합니다. 분노와 슬픔에 잠긴 시바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땅에 던졌고, 그 속에서 전사 '비라바드라'가 태어났습니다.

Vira(용맹한) + Bhadra(친구): 슬픔 속에서 태어난 용감한 동반자.

비라바드라가 닥샤에게 번개처럼 날아가는 찰나를 상상해 보세요. 수평으로 숙인 상체, 뒤로 뻗은 다리, 검을 쥐고 앞으로 뻗은 두 손. 비라바드라사나 3의 날아가는 듯한 형상은 바로 이 돌진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 목표 동작: Virabhadrasana3(비라바드라사나) 전사3 자세

"미친 효율"의 전신 운동: '힘 + 균형 + 정렬 + 집중'을 동시에 잡는 가장 스마트한 전신운동!

- 1. 하체 폭발:** 지지하는 다리의 허벅지와 엉덩이(중둔근)가 단단해집니다.
- 2. 균형 감각&척추정렬감:** 한 발로 서서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균형 감각이 극대화됩니다.
- 3. 집중력 향상:** 마음이 흐트러지면 바로 무너지는 자세이기에 잡념이 사라집니다.

수련 가이드 (약 15~20분)

Phase 1: 워밍업 (코어 및 밸런스)

- ◆ **Bird Dog (4세트):** 네발기기 자세에서 반대쪽 팔다리를 길게 뻗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와 무릎을 맞닿게 합니다.
- ◆ **다리 수평 뻗기 (8회):** 상체를 고정된 채 한쪽 다리를 바닥과 수평이 되게 뒤로 뻗어 코어 힘을 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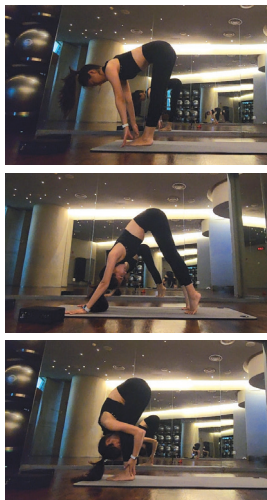
Phase 2: 빌드업 (하체 근력)

- ◆ **Utkatasana (의자 자세):**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 투명 의자에 앉듯 버팁니다. (10초 이상)
- ◆ **Eka Pada Utkatasana (외다리 의자 자세):** 의자 자세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에 올리고 중심을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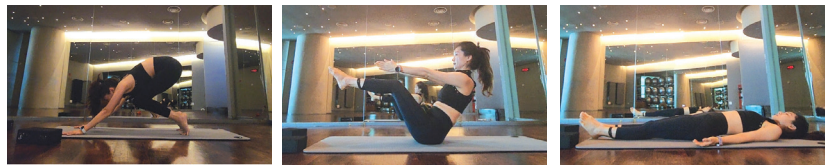
Phase 3: 타겟 포즈 (전사 3자세)

1. **High Lunge:** 한 다리를 뒤로 뺀어 앞 무릎을 직각으로 세우고 양팔을 하늘로 뻗습니다.
 2. **Transition:**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무게중심을 앞발로 옮깁니다.
 3. **Warrior 3:** 뒷다리를 들어 올려 상체와 다리가 바닥과 수평(T자형)이 되게 합니다.
- ◆ **Tip:**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수평을 유지하고,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힘들면 손으로 블록이나 바닥을 짚습니다.)



Phase 4: 쿨다운

- ◆ **Vinyasa Flow:** 다운독에서 점프하여 상하체를 밀착하며 흐름을 정리합니다.
- ◆ **Savasana (사바사나):** 나바사나(배 자세)로 복부를 수축한 뒤, 온몸의 힘을 빼고 시체 자세로 휴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시바의 마음속에는 복수보다 슬픔을 잠재우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사 3자세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호흡으로 돌아올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흔들리고 있다면 잠시 전사 3자세를 해보세요. 균형을 잡으려는 그 짧은 집중의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Namaste. 12월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떨떡이는 근육과 찬란한 갈기를 휘날리며 뛰는 말처럼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적도의 열기와 꽃내음을 느끼며 속도에 리듬을, 힘에는 균형을 실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Hyaang, the Yoga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언어와 문화를 잇는 배움의 현장, 땅그랑 세종학당 수료식 성료

땅그랑 세종학당 운영요원·교원 | 정유희

12월 20일, 땅그랑 세종학당은 BSD에 위치한 IPEKA 크리스천학교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2021년 7월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땅그랑 세종학당에는 올해 총 235명의 인도네시아인 학습자가 등록해 한국어를 학습했으며, 2학기 수료식에는 정지은 학당장을 비롯해 수료생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지인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수료를 축하했다. 수료식은 땅그랑 세종학당 2B 수료생이자 인플루언서인 유니 옥타비아의 케이팝 댄스 메들리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수료식장 한켠에 마련된 포토 부스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며 사진을 찍는 등 기쁨의 순간을 기록했다.

수료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정지은 학당장(한동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매일 저녁과 주말에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학습자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라며 학습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정 학당장은 수료생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력을 축하했다. 또한 수료식에 참석한 땅그랑 세종학당 현지 운영기관 IPEKA 크리스천학교의 디렉터 캐



롤라인은 우수 학습자 시상상을 통해 수료생들의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을 응원했다. 이어 3B 수료생 제슬린 찬드라 크리스탄토는 학습자 대표로 한국어로 학습 소감을 발표하며 땅그랑 세종학당과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 막바지에는 한국 관련 퀴즈와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3B 수료생 샤마라, 1B 수료생 무하마드, 1A 수료생 그라시아가 그룹을 이뤄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클로징 댄스 무대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땅그랑 세종학당은 땅그랑 지역에서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IPEKA 크리스천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에 앞장서며, 인도네시아 내 긍정적인 한국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



월루즈 에라닝띠아스 (아증)
통번역사 | System Ever Indonesia



최근 사무실에서 회
의나 교육 일정이 뿔뿔
하게 이어지면서, 12월
주말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쉬기로 했다. 피로
가 쌓여 몸도, 정신도 무
겁고 두통약을 챙겨 먹어
야 할 정도였다.

12월 중순쯤에 걸린 감기도 월말까지 잘 낫지 않
았다. 원래는 회복이 빠른 편인데, 추운 날씨와 늘
어난 업무 부하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저 숙소에서 푹 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라고 생각한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을 가졌다. 가끔은 "아름다움은 비어 있다"는 말
처럼, 비워내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휴식을 얻는
것 같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을 가끔 직접
만들어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또한 넷플릭스
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 되었다.

〈자백의 대가〉,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
다〉, 〈냉장고를 부탁해〉와 〈흑백 요리사: 요
리 계급 전쟁 시즌 2〉. 요즘 많이 즐겨 보는 프
로그램들이다. 스틸러부터 로맨스, 요리 방송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즐겼다. 그날의 감
정에 따라 골라 보는 재미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
다〉가 제일 인상 깊었다. 아무래도 나도 26년 차

모태솔로라, 비슷한 연령대인 출연자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었다. 연애 방송이라 오글거림
을 느끼면서도 자꾸만 몰입하게 되는 묘한 매력
이 있었다.

그리고 《안녕,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직 36페이지밖에 읽지 못했지만, 지
친 마음에 약이 되어주는 책이다. 위로와 사랑, 20
대 중반 가장 받고 싶은, 그리고 내 인생에도 꼭 필
요한 두 가지다.

일상생활에서 남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해야 하
는지도 이 책을 통해 배웠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
느끼는 것이 다르기에 내 감정이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먼저 이해해야 타인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말로 하기엔 너무 쉽지만 실제로 하기엔 어려운
이 삶의 이치들을 되새겨 본다.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
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어느 날, 사무실을 나선 길, 비가 그친 하늘에 피
어난 무지개가 보였다. 마치 나에게 "오늘 하루
도 수고했어, 잘 버텼어"라고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 온종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번개
까지 친 후에야 비로소 무지개가 떠오르듯, 내 고
된 하루 끝에도 따스한 선물이 찾아왔다.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2)

지난 호에 이어

10. 사업권 (Hak Guna Usaha / HGU)

토지 자체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 어업 및 목축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에 사업권을 허용한다.

10.1.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사업권 보유를 허용한다.

10.2. 사업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ha 이상이어야 하며, 25ha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사업권 토지 면적은 최대 25ha까지이며, 법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면적은 중앙 토지원장이 정한다.

10.3. 사업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연장 최장 25년, 갱신 최장 35년이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초 최장 35년과 연장 25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년을 동시에 줄 수 있다.

10.4. 사업권은 자유롭게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으며 담보 능력이 있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10.5. 사업권 보유자의 의무

10.5.1. 국가에 법정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10.5.2. 사업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는 농업, 플랜테이션, 수산업 혹은 목축업을 해야 한다.

10.5.3.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사업권 보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10.5.4. 사업권이 부여된 토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및 환경 시설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10.5.5. 토지 비옥도를 유지하고 자연 자원 파손을 예방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0.5.6. 사업권 사용에 대하여 매년 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5.7. 사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10.5.8. 사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권 등기 권리증서를 발급기관인 토지원에 반납해야 한다.

10.6. 사업권의 소멸 사유

10.6.1. 사업권의 시효가 경과한 경우

10.6.2. 법정 의무 불이행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 유권 기관에서 강제로 취소한 경우

10.6.3. 사업권 시한 만기 전에 보유자가 자진 반납한 경우

10.6.4.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10.6.5. 취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 방치한 경우

10.6.6.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6.7. 사업권 보유자가 법정 보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11. 건축권 (Hak Guna Bangunan / HGB)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축권이라고 한다. 공장, 창고, 사무실 빌딩, 주택,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거의 전부 건축권이다.

11.1. 건축권 보유 가능자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지사,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외국인, 인도네시아 사업 자일지라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공동 사업체 (Joint Operation)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법인 자격을 획득한 주식회사(PT), 재단 혹은 조합에게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지분의 100%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투자회사에게도 법인 자격을 획득하면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거나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1년 이내에 건축권을 유자격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건축권이 실효하며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정관 개정 미비로 법인 자격을 상실한 채 토지를 보유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부동산 매매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부여 및 등기국가 소유 토지, 개발권 토지 혹은 소유권 토지에 건축권을 줄 수 있다. 소유권 토지에 대한 건축권 부여는 토지문서 작성관(PPAT)에 의해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중앙 토지지원장이 부여하며, 건축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1.3. 건축권 유효 기간건축권은 최초 최장 30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30년 갱신이 가능하다.

투자 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연장 20년, 갱신 30년을 합쳐 총 80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1.4.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조건

11.4.1.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을 한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건축권 보유자의 법적 신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혹은 법인이어야 하고, 대상 토지가 국토 이용 계획서상으로 건축권 부여에 문제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

11.4.2.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늦어도 건축권 만기 2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11.5.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

11.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는 건축권 취득세 5% 외에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1.5.2. 정부의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환경 훼손이 없게 사용해야 한다.

11.5.3. 건축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 원본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11.6. 건축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1.7. 건축권 토지는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1.8. 건축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1.9. 건축권 실효건축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이 되면 건축권은 실효한다. 따라서 건축권 토지(부동산)를 매입 시에는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의무 사항 불이행에 따른 취소, 법원 확정 판결, 자진 반납, 공익 수용, 자격 상실(국적/법인격) 후 1년 내 미처분 시 건축권은 실효한다.

다음 호에 계속

2026년 병오년 새 아침,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문화 · 다법체계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각자의 직분으로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온 신뢰는 오늘날 한인사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도네시아의 사법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은 더 이상 안전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투명한 행동만이 우리 공동체의 다음 단계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1세대의 경험과 2세대의 감각이 조화롭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른 세대는 열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포용하고, 젊은 세대는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을 감정이 아닌 합리적 절차로 해결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품격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한인동포'라는 이름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계속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 2025.1.1 ~ 2025.12.3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300,000,000
2	명예회장	승은호	PT. KORINDO GROUP	150,000,000
3	명예회장	신기업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0
4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50,000,000
5	명예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150,000,000
6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100,000,000
7	명예고문	마용도	PT. YONGMA	100,000,000
8	명예고문	송창근	PT. KMK GROUP	100,000,000
9	명예고문	정필립	PT. KODECO ENERGY CO LTD	100,000,000
10	고문	김소웅	PT. SCI	75,000,000
11	고문	김영울	PT. SUNG CHANG INDONESIA	75,000,000
12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75,000,000
13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75,000,000
14	고문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75,000,000
15	고문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75,000,000
16	고문	손한평	PT. DONGSAN HOLDINGS	75,000,000
17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75,000,000
18	고문	이강현	PT. HYUNDAI MOTOR ASIA PACIFIC HEADQUARTERS	75,000,000
19	고문	이기홍	PT. TIMUR Satria PERKASA	75,000,000
20	고문	이세호	PT. GORI GLOBAL INDONESIA	75,000,000
21	고문	이호덕	PT. ROYAL SUMATRA GROUP	75,000,000
22	수석부회장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75,000,000
23	수석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50,000,000
24	수석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150,000,000
25	수석부회장	이지완	PT. JIN YOUNG	150,000,000
26	부회장	강수한	PT. CHAEUM DESIGN	75,000,000
27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5,000,000
28	부회장	구형희	PT. SHINHAN BANK	75,000,000
29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ARUNIA	75,000,000
30	부회장	김육찬	PT. GARUDA TWIN JAYA	75,000,000
31	부회장	김응철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75,000,000
32	부회장	김재홍	PT. DAE IN TECH INDONESIA	75,000,000
33	부회장	김창곤	PT. KODECO ENERGY CO LTD	75,000,000
34	부회장	서윤석	PT. PRATAMA ABADI INDUSTRI	75,000,000
35	부회장	송기섭	PT. COSMOS INDO INK	75,000,000
36	부회장	송광택	PT. AERA MITRA INDONESIA	75,000,000
37	부회장	승범수	PT. TSE GROUP	75,000,000
38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75,000,000
39	부회장	이근대	PT. DONGBANG	75,000,000
40	부회장	이광욱	PT. YUNI INTERNATIONAL	75,000,000
41	부회장	이주한	PT. MEDISON JAYA RAYA	75,000,000
42	부회장	이상현	PT. JIPYONG SOUTH ASIA	75,000,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43	부회장	이승수	PT. SINYOUNG ABADI	75,000,000
44	부회장	이승준	PT. RS GROUP	75,000,000
45	부회장	이해왕	PT. BANK KB BUKOPIN TBK	75,000,000
46	부회장	장윤하	PT. HARINDO	75,000,000
47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75,000,000
48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75,000,000
49	부회장	최지훈	PT. TIGA WIJAYA SUKSES	75,000,000
50	부회장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75,000,000
51	자문위원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20,000,000
52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000,000
53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20,000,000
54	자문위원	김경국	PT. CYBER WORLD INDONESIA	20,000,000
55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20,000,000
56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20,000,000
57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20,000,000
58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20,000,000
59	자문위원	김재훈	PT. BNG AKUNTAN INDONESIA	20,000,000
60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20,000,000
61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20,000,000
62	자문위원	박의태	PT. SKYTAPE INDONESIA	20,000,000
63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20,000,000
64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20,000,000
65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20,000,000
66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20,000,000
67	자문위원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20,000,000
68	자문위원	이종남	PT. SINYOUNG ABADI	20,000,000
69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20,000,000
70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000,000
71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000,000
72	자문위원	조현보	PT. KOMITRANDO-EMPORIO	20,000,000
73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20,000,000
74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20,000,000
75	자문위원	하재수	PT. ROYAL PUSPITA	20,000,000
76	이 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5,000,000
77	이 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5,000,000
78	이 사	강용복	PT. SIN SUNG INDONESIA	15,000,000
79	이 사	강진호	PT. CHEONGDAM GARDEN	15,000,000
80	이 사	강형구	PT. TUGU INSURANCE BROKERS	15,000,000
81	이 사	곽봉규	PT. FOODSTAR GLOBAL	15,000,000
82	이 사	고광희	PT. IRUM GLOBAL INDONESIA	15,000,000
83	이 사	권용숙	PT. JIPYONG SOUTH ASIA	15,000,000
84	이 사	김동석	PT. DUNIA TRASPORTASI LOGISTIK	15,000,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85	이 사	김민수	PT. PARK LAW FIRM	15,000,000
86	이 사	김상규	PT. OK CONSULTING	15,000,000
87	이 사	김서경	PT. ACCENTUATES	15,000,000
88	이 사	김 신	PT. YUBI TECHNOLOGY	15,000,000
89	이 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5,000,000
90	이 사	김영주	PT. SAINT JAMES	15,000,000
91	이 사	김옥준	PT. BSI GROUP	15,000,000
92	이 사	김일태	PT. OROM	15,000,000
93	이 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5,000,000
94	이 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5,000,000
95	이 사	남궁훈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15,000,000
96	이 사	남창우	PT. KORNET	15,000,000
97	이 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5,000,000
98	이 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15,000,000
99	이 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5,000,000
100	이 사	박남형	PT. APLUS LOGISTIK	15,000,000
101	이 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5,000,000
102	이 사	변 진	PT.ELOK XANTENA EKONOMI MAJU	15,000,000
103	이 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5,000,000
104	이 사	서광호	PT. KEUMKWANG SEMYU INDONESIA	15,000,000
105	이 사	성예식	PT. F1-LOGIX	15,000,000
106	이 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5,000,000
107	이 사	송진은	PT. KMK GROUP	15,000,000
108	이 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
109	이 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5,000,000
110	이 사	양호정	PT. KISWIRE INDONESIA	15,000,000
111	이 사	염정윤	PT. HANSAE INDONESIA UTAMA	15,000,000
112	이 사	오동훈	PT. FNS TRANS BUANA	15,000,000
113	이 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5,000,000
114	이 사	이동규	PT. DAEHAN GLOBAL	15,000,000
115	이 사	이성삼	PT. LIGA SEJATI SEJAHTERA	15,000,000
116	이 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5,000,000
117	이 사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15,000,000
118	이 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5,000,000
119	이 사	원은재	PT. ACCESS MOBILE INDONESIA	15,000,000
120	이 사	장영관	PT. LAYCO	15,000,000
121	이 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5,000,000
122	이 사	최희정	PT. MULTI SOLUSI NUSANTARA	15,000,000
123	이 사	한지훈	PT. GLOBAL ALPHA LOGISTIC	15,000,000
124	이 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5,000,000
125	이 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5,000,000
126	이 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5,000,000
127	사무총장	임성필	PT. LSP INDONESIA	15,000,000

2025 안인뉴스 기부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고문	김준규	CIPTA ORION METAL	50,000,000

2025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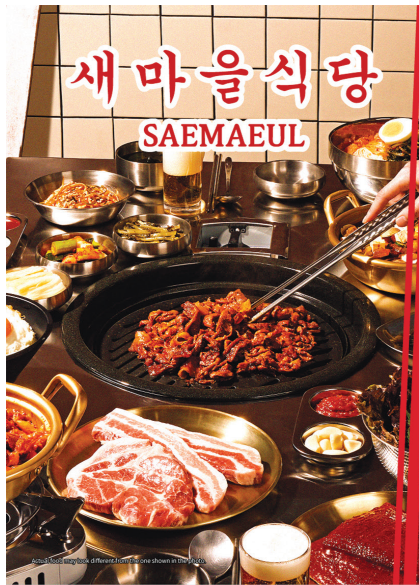
※ 기준: 입금순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1	허소영	300,000	21	이지선	500,000	41	김담빛	500,000
2	임성필	300,000	22	백현채	500,000	42	최장식	500,000
3	이정숙	300,000	23	최석일	500,000	43	장휘진	500,000
4	박희도	300,000	24	강희중	500,000	44	이지선	500,000
5	최지은	300,000	25	배선목	500,000	45	이주영	500,000
6	천향진	300,000	26	구수진	500,000	46	박정민	500,000
7	송재선	1,000,000	27	이지선	500,000	47	황유미	500,000
8	김예진	300,000	28	강현구	500,000	48	최희진	500,000
9	신진섭	300,000	29	이지선	500,000	49	김윤영	500,000
10	No Name	300,000	30	이영미	500,000	50	이지선	500,000
11	김경희	300,000	31	김근수	500,000	51	이희경	500,000
12	김규리	300,000	32	이윤정	500,000	52	이지선	500,000
13	차윤재	300,000	33	홍석영	500,000	53	이지선	500,000
14	최인실	300,000	34	오세명	500,000	54	정 선	500,000
15	김윤진	300,000	35	유정화	500,000	55	안소민	500,000
16	이지선	500,000	36	이지원	500,000	56	이자영	500,000
17	박재걸	300,000	37	오준식	500,000	57	이지선	500,000
18	류재철	300,000	38	최하진	500,000	58	이주영	500,000
19	홍예지	300,000	39	김지윤	500,000	59	이가영	500,000
20	이지선	500,000	40	하지영	500,000	60	신윤희	500,000



이 원님께서 더해주시는 소중한 힘은 제7대 한인회의 내실을 다
□ 지고 한인사회의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입니다. 정성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봉사하며 임원 여러분의
 자긍심을 지켜드리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배상



The Original Korean BBQ

SAEMAEUL PIK

새마을식당 3호점

OPEN영업중

☺ Golf Island, Ruko No.01-02 Boulevard Blok A, Jkt Utara,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4470

+622122570258

1호점

새마을식당 SCBD점

☺ SCBD Lot 8 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 RT5/RW3, Senayan, Kec.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190

+6285972574412

2호점

새마을식당 Gading Serpong점

☺ Jl. Gading Serpong Boulevard Blok CBD No.101 3, Curug Sangereng, Kec. Klp. Dua, Kabupaten Tangerang, Banten 15811

+6285215061211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K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유치원	8351540

하나유치원	844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카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뽕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찌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뽕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뿌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귀요요 진정한 스승입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하나마트	8459 0064
Q MARKET(구 한일마트)	7212 0299
한일마트(땅그랑)	0813 1620 0225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 아시안 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닭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Bornga)	739 6229
본가(족자카르타)	0274 2831440
본가(Wolter Monginsidi)	0811 1880 826
본가(Blok M)	0811 9896 897
본가(Kelapa Gading)	0812 1989 7004
본가(Lippo Mall Puri)	0811 9312 868
본가(Gading Serpong)	0813 8719 1373
본가(Cikarang)	0813 8723 0639
본가(PIK)	0858 8163 0122
본가(Central Park)	0811 8000 3637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북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식당(Saemaoul Sikdang)	
새마을식당(PIK)	0811 9000 1051
새마을식당(SCBD)	0859 7257 4412
새마을식당	

(Gading Serpong)	0852 1506 12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 4007 7256
아랑진사갈비	0857 8263 7072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 (SCBD)	021 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2 1372 2793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포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투어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로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가람투어 & 컨설팅 021 5573 1236
 0821 1010 3647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종교 단체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 스마랑/족자**
-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갈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인재채용

- OSSI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 리콤컴퓨터 725 1606
- 컴퓨터 원 5576 5228
- 지텍컴퓨터 5696 7001
-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 한비텔 8379 1144
-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 SILVER BIRD 798 1234

- BLUE BIRD 794 1234

● 하숙

-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 동지 하숙 3608 9316
-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 모나리자 8990 9570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 쉴터 하숙 726 8775
-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021 300 250 4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인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류성운) 0855 1212 148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최재혁) 0811 87 0386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이동현) 0812 2336 6772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헌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 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공 석)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국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권 양 회	08122-8000-654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부회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정 찬 식	0815-8414-1495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사무총장	우 원 필	0812-283-2238
11	발리한인회 [0822-1996-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석 태 환	0822-8820-1223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0411-483-6713]	회장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One Step Ahead

우리는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KORINDO

www.korindo.co.id